

피의 인침

The Blood Seal

New Moon Meeting: May 2006

이 달에 연구할 주제는, 지난 안식일에 어떤 자가 보낸 이- 메일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견해를 기록하였다. 그것이 개심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이 주제가 다른 것들과 관련되었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새 달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인침은 기별과 연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질적인 **CSDA**의 가르침과 다른 목회들의 가르침들의 차이점에 관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검토하고 대처해야 할 현대 진리들의 가장 중대한 주제가 되고 문제점이 된다.

이 기록이 매달마다 있는 새달 연구 주제의 리스트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피의 인침"으로 명칭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말할 때, (계시록 **7:2, 9:4**)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엘렌 화이트의 기록들에서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인용문을 여기에서 발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 받은 바로 즉시 - 어떠한 인침의 흔적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진리 안에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정되어서 흔들릴 수 없게 된다 -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 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된 즉시 환란이 올 것이다. 참으로,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Ten, page 252]

그러나 지금, 우리가 깨달은 이 문제가 하늘에서 비추어진 대로 완전하게 지속되고 있으면, 그것들과 연결된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 1) 하나님의 인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 2) 우리가 정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고정되어야 하는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말씀을 표면상으로 읽고 이 문제를 취급하면, 이 질문에 대한 첫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인침이 성령"이다. 고 말할 것이다. 내가 이전 가르침에서 이 견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그 견해에 대하여 다시 설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내가 왜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 아니고 피의 인침이라고 일컫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침은 뭔가 다른 것이므로, 다음 달에 성령의 인침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성경말씀을 보기로 한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보증금으로)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1,22)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 그 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포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3, 10, 13, 14)

윗 구절들이 계시록 7장에서 믿는 자들을 "모으는" 것과 인치는 사업이 연결된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키의 요소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28-30)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의로운 생애를 살도록 충고한 후에, 또 다시 야 하나님의 인침에 대한 주제에 접근한다; 그리고 지금 이 세 문단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야웨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의 성령의 매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인침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인침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 인침 받았으므로, 그 인침이 성령과 똑 같은가?

답: **No.** 인침은 고정된 말씀으로 인친 것과 다를 바 없다.

답: 인침은 진리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 똑같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인이 돌과 같은 물체이면, 내가 그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인을 주고 보증금으로 돌을 주었다. 고 하면, 장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지금, 때로는 성경이 참으로 과다한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십일조와 헌금을 내지 않은 죄인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말라기 3:9)

그대가 저주로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으면, 인과 함께 인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 바로 그 구절 자체에서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고 말한 것을, "너희는 약속의 인으로 인침 받은 것이니라."고 읽으면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두 번째 단어가 말하는 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 아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최소 한도로 두 구절들을 고린도후서 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더 찾아 볼 수 있다,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중개로 하여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이다. 더욱이, 계시록 7장에서 천사가 인장을 가진 것을 보여준 것은, 그 "인장"의 단어가 영어와 그리스어 둘 다, (인치는 도구를 의미하고) 그 인장 자체를 표하기 위하여 사물을 사용하여 표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이 주어졌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엄밀한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 7장에 유사한 점을 읽는다.

"보라, 여섯 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 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 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야웨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고 하시고" (에스겔 9:2-4)

엘렌 화이트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 분의 백성들의 이마에 기록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이는 천사들이 표한 것이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다; 그러나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구원의 표를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Letter 126, 1898) 잉크통으로 표하는 천사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모든 자들의 이마 위에 표할 것이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천사의 뒤를 따라 간다." (Letter 12, 1886), [Bible Commentary Vol. 4, page 1161, Chapter: Ezekiel]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분의 명령을 수행하며 땅의 바람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어떤 수목이라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천사가 동쪽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여졌다. 천사들 중 가장 강한 이 천사는 그의 손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그 분만이 불멸과 영생을 받을 자들의 이마에 표나 그 분의 이름을 새기실 수 있다. 네 천사가 이 사업을 끝낼 때까지 바람을 붙들도록 명령하신 분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천사의 음성이었으므로, 그 분께서 놓으라고 명할 때까지 바람이 붙들려 질 것이다. [...]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은 계시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보여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요한도 역시 이 가장 놀라운 계시를 목격한 자이다." [Testimonies to Ministers and Gospel Workers, pages 444, 445]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부차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취급한다. 재림교 교리를 연구하는 어떤 단체들이, 화이트 자매가 에스겔 9장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잘못 해석하고, 특히 다음 문장을 오해하였다. "에스겔 9장을 연구하라.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잠들어 있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8, page 236]

지금, 에스겔 9장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에게 [멸망시키는 천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인치는 천사의 뒤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 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5,6)

지금, 디비디안/재림교 분파가 지키고 있는 체계적인 이론은, 엘렌 화이트가 "문자 그대로"라는 언어를 사용한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다윗 왕과 디비디안 사람들이 능력으로 일어나서 지상 전체를 지배할 것이므로, (디비디안 사람들이 영감으로 고려하는 책) '목자의 지팡이'를 받아들이고 그들 자신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은 어떤 재림교인들이든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 한다. 그들이 또한 믿기를,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박해가 발발하기 전에, 그들이 144,000으로써 지상을 당분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엘렌 화이트가 사용한 "문자 그대로"라는 단어의 방식을 오해한 이유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고, 또한 실제로 삼위일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도, 화이트 자매가 성령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에 적용시켜서 오해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대가 어떻게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원하면,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150년 전에 (엘렌 화이트가 원고 MR을 기록하였을 때), 그 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풍습들과 저자가 기록한 문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비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엘렌 화이트가 "문자 그대로" 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은 "명확히" 또는 "모든 요소들에 따라서" 라는 뜻이다. 그대가 단순히 그녀의 기록들을 더 많이 읽고,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들을 연구하면 이 의혹 너머에 있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단호하게 그 자신을 단련시키고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불확실하고 되는 대로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라고 표현한 것은, 문자 그대로, 그 욕망들과, 충동들과 감정들을 호되게 자제하고 쳐서 복종시켰다는 의미이다...." [Conflict and Courage, page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같이) 그의 욕망들을 문자 그대로 "쳐서 복종"시켰는가?

No. 그 단어의 의미를 영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바울이 단호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통하여, 유혹들을 극복하였다, 그가 이렇게 유혹들을 극복한 과정은, 우리가 (문자적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습관적인 행위와 성벽을 "쳐서 복종시킨"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므로 저주로 가득 채워졌다. 노아 때처럼, 폭력과 부패가 문자 그대로 죄악의 대홍수가 되었다." [In Heavenly Places, page 362]

윗 문단에서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같이) 문자 그대로 죄악의 대홍수가 되었는가? **No.** 이는 영적인 대홍수를 말한 것이다. 참으로 이 세상이 죄악의 대홍수가 되었다, **yes...** 죄악의 홍수가 압도한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의도한 그 언어들 해석하면, 그 죄악들의 기세가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영적인) 숨을 가까스로 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같이) 문자 그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여하신 빛과 증거를 문자 그대로 거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구주가 있을 수 없다." [The Paulson Collection of Ellen G. White Letters, page 352]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빛을 주신 것이 사실이다, (창세기 1:3) 그러나 엘렌 화이트가 그 문단에서 빛 그것 자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기도와 말씀 연구의 결과로 영적인 빛을 통하여 온 근거에 관하여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실례들을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대가 알 수 있다고 믿는다. 화이트 자매가 "문자 그대로" 라는 단어를 대량으로 사용한 의도가 오늘날 우리의 의도와 같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으므로;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 단 하나의 증거 위에 교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의 (신명기 19:15) 원형을 거절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원칙들을 알기 위하여 읽어야 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들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된 마음 없이, 성경 말씀이 가져다 선물을 단지 건성으로 그저 되풀이 하여 읽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엘렌 화이트의 인용문이 그 "진상을 규명"한다, 이는 그녀가 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확립한 것이다:

"[윌리엄 밀러]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그 징후의 모든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The Great Controversy, page 320]

바꿔 말하면, 그대가 예언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해하였을 때, 그대가 그 해설을 통하여 진리들을 획득하였으므로, 문자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예기한다. 예언의 표징들로 나타난 원형에 대한 모형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이것이 피의 인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에스겔 9장에서 설명하는 사건들이 (계시록 7장을 포함해서) 명확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것들 모두가 각기 세부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인 사건들이므로 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위에서 제시한 그러한 이론을 혼동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그대로"의 단어대로) 우리가 "표"를 문자 그대로 이마에 받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멸망시키는 천사와 인치는 천사가 성소에 관한 진리를 아는 자들부터 시작한다, 이는 "문자 그대로" 지상 예루살렘에 있는 야의 성전에 있는 늑은이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견해를 디비디안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에스겔 9장에 있는 사건들이 참으로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겔 9장이 영적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확고 부동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종합하면, 야웨의 인은 우리가 얻은 "표"이다:

- 1) 성령이 중개 작용을 한다.
- 2) "진리" 안에서 고정된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 3) "멸망시키는 천사"의 일을 정연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한다.
- 4) 영적인 상태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지적한 구절들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잠시 후에, 두 번째 것을 검토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세 번째 국면을 시작한다. 이 에스겔서 성경 구절 외에 어떤 성경 구절에서 "멸망시키는 천사"를 말하였는가?

답: 이집트.

Yes, 나 역시 이집트를 생각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양을 골라 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야웨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야웨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21-23)

이 문단에서, 야의 천사가 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멸망시키는 자가 [...], 의로운 자들을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모순이 아니다, 이는 오직 야웨께서 이 사건들을 명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비록 중개자들 즉 (천사들) 자신들의 손으로 수행할지라도 그들의 활동들을 그 분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멸망시키는 자의 파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표"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어린양의 피가 명확하고 참된 응답이다. 하여간 이것이 다른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표 자체가 피였다.

이것을 그대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성취된 것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 사건들이 (옛날 관념 안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러므로 목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7)

그대가 시간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을 말하는 세 성경 구절로 돌아가서 같은 장의 첫 부분들을 엄밀히 보라. 그 주제가 세 성경 구절들과 일치함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믿는 자의 생애가 야쉬와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에 관하여 저자가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그 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1:13)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출애굽기로 되돌아가면, 인이 실제로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인"이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가 "인" 안에 있는 네 번째 기준을 보면, 영적인 상태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바꿔 말하면, 그대가 인침 받았을 때, 문자 그대로 그대 이마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확고한 진리로 요지부동한 결심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피의 인침을 느끼게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진리"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가 언급하는 인용문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에스겔 9장에 있는 구절 하나를 더 읽는다, "야웨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에스겔 9:4)

여기에서 히브리 언어 "표 (taw)"는, 확실한 언약 3장에서 (그대가 아직도 이 주제를 읽지 않았으면 읽기 바란다!) 지적한 것과 같이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써, 에스겔 당시에 바로 십자가와 똑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었다.

전능하신 분께서 지금 인치는 천사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이마 위에 십자가를 표하라..." 고 하신다.

여기에서 내가 왜 "야의 인"을 "피의 인"으로 일컫는지 이해하겠는가?

우리가 이어서 인의 본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러나 이 집회에서 두서너트의 중요한 개념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경에서 "인" 또는 "인장"이 (최초에 있었던 어법과 똑 같은 표현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에 인을 쳤더라." (느헤미야 9:38)

"만군의 야웨가 말하노라. 오 스알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야웨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야웨가 말하노라." (학개 2:23)

"그 분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인침 받았느니라." (영문 요한복음 3:33)

인들과 인장들을 받았다는 것은, 야웨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혹은 우리가 그 분께 가까이 하였을 때, 발원된 것이며, 그 분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진리" 안에서 고정 될 수 있도록 초청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믿음의 토대이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 10:23)

인간의 믿음의 바탕은, 마땅히 야웨를 신뢰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그 분의 진리 안에서 고정될 때,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고, 그 분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들을 지키실 것이며, 그 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들을 완수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대가 이해하는가?

우리가 야웨의 법령들을 중요시하고 그 분의 언약들과 계명들을 지킬 때, 그 분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또 우리가 그 분께 언약한 것들과 약속한 것들을 지킬 때, 기독교인들으로써 이 세상 제도와 다른 것들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인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적격자가 된다.

야웨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4) 인침에 대한 진리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가장 근본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성품을 정연하게 알기 위하여, 그 분께서 유일하게 약속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 분께서 선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니 [때문에]) 참으로 그 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가 거듭 남을 통하여 죄를 극복하고 승리 할 수 있다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요한일서 3:9)

그 분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것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흔들림 때, 우리가 환란의 때를 통과 할 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다. (베드로전서 1:7, 시편 91:7, 요한복음 16:33, 계시록 2:10, 에레미야 30:7)

야쉬와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무덤으로부터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시키시리라고 약속하셨다. (고린도전서 15:22)

지금, 이러한 방식 안에서 종종 이 예언들이 조건부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므로, 어떤 성경 연구자들이 곤궁에 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엘렌 화이트가 유일하게 지적인 기록들이 말하기를, "국가적인 일요일 준수령을 주의하라"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 "영의 인침"을 논의할 때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말할 것이다. 비록 예언 성취의 방식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요나가 예언한 니느웨이와, 에스겔이 예언한 예루살렘의 실례를 주목하라) 인류를 위한 언약들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 언약들이 확실히 존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그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지난 달에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들의 본질적인 기별에서) 구원의 세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검토 하였다. 야께서 그 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 안에서 고정된 자들은, 온 우주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가장 확실한 잉크로 기록된 인의 증거를 받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께서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한다."** (영문 히브리서 12:24)

지금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인침의 축복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로 말미암아, 이 생애와 다음에 오는 세상을 헛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야쉬와의 약속들과 상반되는

것들을 행하고 인침의 기별을 저항하면,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보호하실 것이다. 고 약속하신 (예증이 **CSDA**에게 아주 잘 알려졌다) -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한다. (히브리서 **13:5**)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구세주와 맺은 언약을 거절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거절하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침의 부적격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안에서 우리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들 가운데 빠지도록 허용하면, 우리가 야쉬와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9**) 그러므로, 우리가 고범죄를 지으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인침의 부적격자가 된다.

그대가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단순히 "야웨께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신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분께서 완수하시고 수행하신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가장 깊은 성품의 요소들을 우리 모두가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 "만찬"에서 말씀의 것이 (벤전 **2:2**) 있어야 한다. 이 도구를 통하여 그분의 성품의 깊은 요소들을 우리가 검토하여야 하고, 그분 안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 바람들에 따라 잘못 인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목사들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이 전능하신 분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코스를 시작하여 아래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으므로, 그들이 큰 겸손으로 자신들이 잘못된 것들을 시인하고 그들의 생애의 방향을 바꾸어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목사들 중에 하나를 개심시키는 것보다도 평신도를 개심시키는 것이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목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주 어려운 것은, 교황을 캐톨릭의 추기경으로 신뢰하고, **SDA** 대총회를 머리로 신뢰함이 그들의 잘못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주 완전한 진가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그들이 결정한 것이 그들의 "원칙"이 되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관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진리를 부지런히 추구하여 우리 자신들이 진리 안에 고정되어 인침을 받아야 한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 각자가 얼마나 많이 "노력"한 것들에 관계치 않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 같은 시험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른 길에 바로 고정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과는 반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참되고 순수한 모범을 보여주고, 그 모범을 통하여 위로자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물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말로 증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으로 말하는 교리들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인침은 요소들의 키 중에 하나는, 우리를 야웨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연합하게 한다. **Yes**, 그리고 우리가 지파들 안에서 인침 받게 된 것을 주목하게 된다. (계시록 **7:4-7**)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바로 같은 인침을 받게 된다. (계시록 **7:2**)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같은 언약들과 같은 진리 안에서 고정되고, 야웨의 언약들과 그분의 진리들에 관하여 똑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한 실례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써 친교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히브리서 **10:25**)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패한 종교 조직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시고, 세상이 우리를 "광야"라고 부르는 곳에 놓으신 것이 극히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분의 사자들이 되었다. (사도행전 **9:19**)

이런 이유 때문에, 성화되는 일이 둘째 천사의 복음이다; 우리가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릇된 조직들로부터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에베소서 **4:12**) 참된 교회 조직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부정한 여인에게 결혼한 남자에 관하여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신 것을 말한 것이며, 사도들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가르침들이 오역되고 약해졌을지라도, 그 분께서 그러한 기독교와 관계를 맺으신 것을 묘사한 것이다.

요즈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흔들거리고, 지조 없고, 의를 행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그들이 오직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으므로, 그들의 참된 남편의 이름과 성품을 취할 수 없다... 그들이 그분의 인을 취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인침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자들을 도와 준다고 살금 살금 걸어 다닌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세 천사들의 기별들 안에서 고정됨 없이 다른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빛이 아주 밝게 빛난다, 인간들이 실제로 세 천사들의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생애하지 않으면, 야웨께 공헌하는 자들이 아니다. 가장 사악한 이 마지막 세대에, 야웨께 봉사하는 자들이 인침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기 바란다.

만일 어떤 자들이 세상에서 자주 선한 일을 하면, 일시적인 선을 행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다신교 종교들조차도 고통 당하는 인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세우고 집 없는 자들을 위하여 피난처들을 세운다 - 그렇지만 이것을 하늘이 허용한 어떤 종류의 자선으로 포함할 수 없고, 하늘을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것과 일관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들을 위하여 박해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면 어떤 의미도 없다. 어떤 사람들이 길 모퉁이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게 하신 사업들을 열거하기 전에, 그들의 사업의 목적이 타락한 교회에 더욱 가깝게 이끌린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떤 식으로 식별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1-5**)

때때로 우리가 그들이 바로 "형식적"으로 행함을 보고 진실하다고 확신하지만, 이 문장 후반에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권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사악하고 무도한 세대에 연합하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 호세아의 경우에 그의 아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을 허용하였고, 또한 그녀가 창녀 짓을 하는 경험을 하도록 허용하였으며, 그녀가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지나간 여러 세기들을 통하여, 그분의 신부가 그러한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자기 친구에게 사랑 받는 간음하는 여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지 말하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예복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야웨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에 야웨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호세아 3:1- 5)

오늘날이 훗날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야쉬와께서 **CSDA** 교회를 통하여, 그 분의 부정한 신부에게 손을 뻗치심은, 기꺼이 그 분과 함께 연합을 원하는 자들이, 여전히 다른 교회들 안에 있는 어두움에 참여하여, 다른 관례들과 다른 사업들과 무수한 오류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이다. 만일 기독교계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호세아의 교훈을 그 분의 백성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그 분의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문제점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고정하고자 몰두할 때까지, 야웨께서 그 분의 팔로 유익함을 주실 수 없다. 그 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20)

우리는 그 분의 지시들을 선택하여 행하여야 하고 그 분의 백성들이 되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오늘 우리가 **CSDA** 운동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분께서 사탄이 참조 하는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사탄이 인류가 보여준 실례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또 인류는 난잡하고 혼란하고 혼동하기 쉽다고 "입증"하기를 좋아한다. 이 문장의 후반이 자연인의 본성이다. 이 동기로 속이는 자가 그와 같은 발판을 지상에 만든 것이다 -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사탄의 입증이 참되지 않다, 그 때문에 우리가 큰 쟁투 속에서도 우리 창조주의 성품을 입증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피의 인침을 더욱 더 완전하게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 안에서 동의하고 고정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웨께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아들의 몸인, 그 분의 신부에게 우리 자신들이 연합하기를 추구하여야 한다. 바로 그러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메시아께서 눈부신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말 위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으니, 나가서 복음을 설교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당시에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바울 그 자신이 그 복음을 완수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하늘로부터 어떤 사명도 그가 받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일을 말해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고 하셨다. (사도행전 9:6) 구주께서 그를 사도 아나니아에게 보내신 것은 (10절) 아나니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바울에게 (기독교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다. (19절)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하늘을 위하여 사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성경과 주석으로 문을 닫아 버리고 그들 자신들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독립 목회가 태어났다. 지금, 믿음으로 연구하고 일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들과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뇌에 아주 많은 오류들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초기에 바울이 (참된 제자들)과 연합한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을 우리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그렇게 행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방식으로 야쉬와께서 그 분의 나라를 세우셨다.

지금, 이러한 개념이 다른 극단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런 식으로 로마 교황직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고정됨에 따라, 우리가 또한 그러한 우발적인 사건을 반대하고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야의 율법과 길은 **"완전하여 혼을 개심시킨다."** (시편 19:7) 그러므로 **CSDA** 교회 안에서 독점적인 교리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고, 비록 교회를 수립한 멤버일지라도 잘못하면 지적 받고 교정 받는다. 멤버들 아무도 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모두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 이는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반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필요 이상의 극단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신약 성경 전면에서 교우들의 권한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그대가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 전체가 또 다른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절차를 설명하는 표현법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고정되고 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불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그 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디딤대들을 준비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하셨다. (마가복음 10:21)

그대가 영적인 센스 안에서 정연하게 인침 받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네 (가족에게 가서, 또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네가 집착한 것들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과 모든 거짓 교리들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모범을 행하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분의 종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지 못함과, 삼위일체 문제와, **SDA**가 행하고 있는 개톨릭 교도의 등록상표 법과 같은 오류들을 행하는 단체들과 연합함에 항거하라.)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현대 진리이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현대 진리들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소유한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지시에 주목하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개심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즉, 개심한 동료들의 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인침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의 인침으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그 인침의 개념이 "언약" 관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음 부분에서 아주 분명히 할 것이다.

개톨릭교들, 침례교들, 감리교들, 주류 재림교들, 독립목회 멤버들, 등등의 단체 안에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이 결코 참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채워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조직에게 선고하신 것과 같이, 그들 조직에게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고 선고 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38)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한 것이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황폐"의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빈, 어두움, 빛과 생명이 없는 것, 등등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고정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분과 그 분의 몸 안으로 연합한다. 이것이 결혼 관계와 일치한다. 내가 위에서 작성한 리스트의 조직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인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자들 안에 피의 인침이 있다. 지금, 우리가 재림교인들으로써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This Day With God, page 257]

성령이 거하는 자들 안에 인침이 있다 (위에서 논의한 "특성들"을 기억하라), 이는 그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들이 몸과 마음을 완전히 그 분께 연합할 때까지, 그 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취하기 전에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5:31) 이는 결혼과 약혼 사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약혼하였을 때는 사랑과 대화로 이끌린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서양과 유럽은 여인이 결혼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서) 결혼으로 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점유"할 때까지는, 그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 이는 바로 "영"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몸"도 언급한 것이다.

이 집회를 끝내면서,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야웨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8, 48:11)

야쉬와께서 전능하신 분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나이다." (요한복음 17:22)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야웨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 고 하신 것이 모순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연하게 인침과 그분의 영광을 받고, 그 분과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분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으로써, 영원한 가족의 실체가 되는 피의 인침의 표를 받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우리 각자가 이 연구 후에, 계시록 7장과 에스겔 9장에서 명백하게 언급한 "인침"에 대하여 효과적인 토론을 하기 바란다. 이러한 문제들을 처음으로 깨달은 모든 자들이, 이 인침이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대단한 복음의 극히 중대한 요소들과 관련된 것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이러한 구원의 진리들을 거절하고 "황폐"하게 된 각종 종교들의 조직들에게 항거할 필요성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David

csda.kr